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12. 12.(월)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행복주택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대순, 사무관 장창석, 주무관 오요셉 • ☎ (044)201-4522, 4524
	신교통개발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이호준 • ☎ (044)201-3820
	LH 주거복지지원처	담 당 자	• 부장 김연중, 과장 이정준 • ☎ (055)922-5501, 5503
보 도 일 시		2016년 12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3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필요할 때 빌려쓰는 카셰어링, 임대주택에서 만나보세요

2017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국 9백여 개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, 이하 국토부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박상우, 이하 LH)는 내년부터 행복주택·국민임대·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·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.
- 그동안 행복주택, 국민임대,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·운영해왔지만 '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(화)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'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'를 개최했다.
-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

이해를 제고하고,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,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,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.

□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'17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'17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.

- 국토부와 LH는 “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,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.”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장창석사무관(☎ 044-201-45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도입관련 공청회 계획

□ 추진배경

- 입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주거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카셰어링 서비스의 장기 추진방향 모색
 - 현재 시범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가 '17.5월 종료될 예정
 - * 영구, 국민, 10년 공임 등 총 99개 단지('15.6~'17.5월, (주)래디우스랩)

□ 공청회 개요

- 일시 : '16. 12. 13(화) 14:00~15:30
- 장소 : LH 본사 (진주 혁신도시 소재)
- 참석 : 국토부(신교통개발과, 행복주택기획과), LH 담당자 및 사업자(現사업자, 그린카, 쏘카, 씨티카 등 카셰어링업체) 등 참석희망자

□ 공청회 안건

-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
- '17년 이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□ 일정계획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4:00~14:10	10'	- 도착 및 참석자 소개	-
14:10~14:30	20'	- 카셰어링 관련 정책소개	국토부 신교통개발과 이호준 사무관
14:30~14:50	20'	- '17년 사업계획 설명 - 사업계획관련 전문가 자문	LH 김연중 부장 변완희 수석연구원
14:50~15:00	10'	-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	이승준 이사 (주)래디우스랩
15:00~15:30	30'	- 질의 및 답변	국토부·LH·운영사업자

